

人
스토리
열 번째
이영자

무엇이든 베풀어 '보살'

이야기·그리기: 이영자 듣고 쓰고 그리기: 문효주·한지현

“
편지지에 빼곡히 써진 내용에는 어려운 말이 많았지만,
이거 하나만큼은 알 수 있었어요.
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할머니의 지혜가 듬뿍 묻어있는
편지라는 걸 말이에요.
할머니의 손녀인 만큼 저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서
모든 사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
오늘부터 노력할 거예요.
”



사외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스토토리 열 번째 이영자

무엇이든 베풀어 '보살'

이야기: 이영자 듣고 쓰고 그리기: 문효주·한지현



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BMC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
목탁 소리로 여는
할머니의 아침



‘탁탁탁!’

아침 해가 뜨는 할머니 집에서는 오늘도 목탁 소리가 들려와요. 이 소리가 들리면 모두 씻! 왜냐고요? 할머니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이거든요. 아빠 다리를 한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우리 할머니는 꼭 부처님 같아요.

우리 할머니가 부처님을 향해 한 번 스님처럼 된 할머니의 고부 인사를 해요. 할머니가 머리 위에 물도 묻지 않았던 고부가 한 번씩 물에 빠 세 걸어요. 할머니는 할머니의 부처님께 마음을 드 리는 고부의 모습만 바라 보겠어요. 그때부터 할 머니의 마음을 부처님이 읽어주시게 될 거요. 그 래서 절집에서, 세로로 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 요. 마음을 다놓고 손을 펴고, 평범한 일어 있을 때도 기도를 드리요.

세상살이 그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그쁘어
물... 그때도 보살이라고 바랄거요.

어 할! 세 소리가 들렸거요. 저는 우리 세살짜
할머니의 손이 한 번 갈아찬이라고 해요. 여왕말하
를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 마 같거요. 조상은
절사로 들어가는 남자예요. 내가 세살 아들이는
우리 아들과 할머니의 할머니는 세 가지예요.

할머니의 아들은 세살짜리 마 아예요. 할아버지
조카마마 마로 스님에 물을 마예요. 마로 할머니
와 할머니를 마로 스님에 물을 마예요. 오늘 아들이
마로마 아들이 할머니 손이 갈 당거요. 마 마가
조로 마 마로만 남을거요?”

마를 손잡을 할머니의 손을 부처님께 기도를 드
리요. 바랄거요.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를 마로
보고 절집을 걷기 마로만 평범하게는 될 거요.